

보도시점 2023. 11. 16.(목) 08:00 배포 2023. 11. 16.(목) 08:00

올 한 해 작은도서관과 함께한 순회사서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11. 16.~17.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워크숍' 개최
- 전국 600여 개관에 234명 파견해 장서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살뜰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6일(목)과 17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0년부터 매년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해 관할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순회사서는 작은도서관 2~3개관을 순회하며 장서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 실무 교육 등을 담당함으로써 도서관 전문 운영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순회사서 총 234명이 전국 작은도서관 600여 개관에서 도서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2024년에도 순회사서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22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작은도서관 6,899개관 중 사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788개관(11.4%)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순회사서와 관할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 260여 명이 함께 모여 올 한 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모범이 된 서울 행복터 작은도서관, 꿈꾸는 작은도서관, 세종 도담풍경채 작은도서관, 충남 부여 라복도서관 순회사서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사업 성과를 확인한다. 아울러 김정연 기획자가 '책문화 세계의 확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참석자들은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책 친구',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통해 작은도서관 안정적 운영 뒷받침

문체부는 '순회사서 지원사업' 외에도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

받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작은도서관 특색에 맞는 독서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전문가 ‘책 친구’ 지원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책임자	과장	이현주 (044-203-2621)
		담당자	사무관	김승정 (044-203-2629)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대한민국
지정책브리핑

